중생 괴로움 없애주는 경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㊲ 성불

"수왕화여, 이 경은 능히 일체중생을 구원하며, 이 경은 일체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경은 능히 일체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여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느니라. 마치 시원한 샘물이 모든 목마른 이를 만족시켜 주는 듯하며, 추운 이가 불을 얻은 듯하며, 벌거벗은 이가 옷을 얻은 듯하며, 장사치가 물주(物主)를 만난 듯하며, 아들이 어미를 만난 듯하며, 물을 건너려는 이가 배를 만난 듯하며, 환자가 의사를 만난 듯하며,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듯하며,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하며, 백성이 임금을 만난 듯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는 듯하며, 횃불이 어둠을 몰아냄과 같으니,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의 생사 속박을 풀어주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면 그가 얻을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린다 하여도 다 알 수가 없느니라. 만약 이 경전을 쓰고 나서 꽃과 향, 영락과 소향, 말향, 도향과 번개, 의복과 갖가지의 등 - 소등과 유등, 온갖 향유등, 첨복유등과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바리사가유등과 나바마리유등으로 공양하면 얻는 공덕 또한 한량이 없으리라. 수왕화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약 여인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수지하면 이 몸이 다한 뒤에는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 하리라. 또 여래가 멸도하신 후 후오백세에 만약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 그대로 수행하면 목숨을 마치고 난 뒤 곧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큰 보살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가서 연꽃 속의 보배로 된 자리 위에 태어나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이 없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없고 교만과 질투 따위의 괴로움도 없으리라.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을 것이며, 이 법인을 얻고 눈이 청정해져서 이 청정한 눈으로 7백만 2천억나유타 항하 모래알 수의 여러 부처님을 뵙게 되리라."

불교의 종교적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할 때 전미개오(轉迷開悟)와 이고득락(離苦得樂) 그리고 지악수선(止惡修善)이라고 말한다. 중생의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하고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나누어 그 목적을 말해 놓은 것이다. 이 장(章)에 와서 〈법화경〉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고득락을 성취하게 한다는 말로 이는 정(定)의 목적이고 신앙의 결과를 말해 놓은 것이다. 불교는 종교이지만 철학과 신앙, 윤리의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삼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말해 본 것이다.

〈법화경〉의 공덕과 그 이익은 〈약왕보살〉 본사품에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 생사의 속박을 풀어준다는 극찬의 말도 있다. 사경의 공덕, 한 번 들은 일문(一聞)의 공덕까지 밝히며 법화의 가피가 그대로 부처님 가피로 설해져 있다.

또 〈법화경〉의 수행 공덕으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정토신앙과 같은 말도 있다. 마치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도 정토왕생의 길을 설해 놓은 것처럼 〈법화경〉을 통해서도 정토왕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대승경전에서 설해진 법문의 요지가 서로 상통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오백세는 말세를 말한다. 〈법화경〉이 말세 중생들 왕생의 길도 열어준다는 이야기다. 물론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삼부경〉처럼 정토왕생을 전적으로 설해 놓지는 않았지만,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도 정토왕생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두 경전이 대승경전의 모든 내용을 포섭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친의 〈법화경론〉에 나오는 〈법화경〉의 다른 이름 중에 '무량의경'이란 이름과 '최상법문'이란 이름이 있듯이 〈법화경〉이 한량없는 뜻의 법문을 설하고 있으며, 최상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므로 성불을 보장하는 최적의 경이며, 항하 모래알 수의 부처님을 뵙게 된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불교계율, 이 시대 나침반 될 수 있을까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㊲ 근현대불교와 계율

동아시아에 뿌리를 내린 불교는 분명히 인도불교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즉, 인도불교는 중국적인 불교로 변모했으며, 중국화된 불교는 한국과 일본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불교는 외래문물이라기보다는 선진문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와 왕실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번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독자적인 불교사상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세의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교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불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불교의 지위는 점점 낮아졌으며, 승려들의 자질과 교육수준도 점점 떨어졌다. 일부 승려들은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처럼 불교는 주류문화에서 밀려나게 되었지만, 불교 신앙은 민간의 습속(習俗)을 흡수하여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 열강에 의해 달갑지 않은 근대화를 맞닥뜨리게 된다. 별다른 충돌 없이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불교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된다. 서양에서 발달한 근대적 불교학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연구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 시작은 16세기 후반의 예수회에 의한 것이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었다. 일본의 유력 종파들은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 교단과 승려교육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유학생을 서양에 파견하여 근대불교학을 배우게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일본에서 불교는 근대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일본화된 근대 불교학은 한국과 중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근대 한국불교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불교를 근대불교의 모델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설치한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을 반포하여 한국의 불교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여 한국불교계는 한국의 선종이 임제종(臨濟宗) 계통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한국불교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게 됐다.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불교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 전통의 붕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불교계에 찾아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보살에 대한 숭배와 정체 모를 의례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는 근대화 과정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는 아시아 불교계의 모습을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종교체험의 기회였고 험난하기만 했던 사찰 순례의 여로는 어느새 고속도로가 놓인 길로 변했고 주변에는 호텔과 유흥시설이 즐비하다. 또 경건해야 할 장소인 사찰은 관광명소로 둔갑하여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편안함은 금욕주의를 무너뜨리지만, 지나친 소비의 거부는 극단적인 종교광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넘어선 현대는 어떤가?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 삶의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수무책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불교사상 내지는 계율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⑬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마음의 의도가 바로 業

5. 업(業)의 의미

불자 여러분! '업(業)'이라는 말은 인도 빨리어로 '깜마'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Karma)'라고 합니다. 'karma'는 'Kar[作]'와 'ma[事]'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까르마의 의미는 업(業), 지음(作), 업을 지음(作業), 소작(所作), 소행(所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갈마(羯磨)라고 음역합니다. 업(業)이란 결과를 낳는 의도적 행동을 말합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꿰뚫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의도를 업이라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은 '의도를 가진 행동'을 말합니다. 즉 마음의 의도가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창조자의 섭리나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시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숙명이나 절대 창조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던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은 사실 모두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른 과보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 삶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업에 대한 사상들은 이미 고대인도 바라문의 베다종교에서부터 설명되었지만 체계화된 업설은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찬도갸 우파니샤드〉에서는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고 하였고 〈브리하트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들(우파니샤드의 話者)이 말한 것은 업(業)이다. 그들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행동으로 성립
각자 삶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자신의 것
"樂과 苦, 연하여 생기고 접촉 연하는 것"

칭송한 것은 업이다.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善人)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惡人)이 된다.' 고 하는 등으로 이미 우파니샤드로 오면서 업에 대한 의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론적 업설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이 브라만의 업설에 대한 사상들을 불교의 사상체계로 받아들여 발전시켰습니다.

중생이 현생에서 선한 행동이건 악한 행동이건 간에 몸과 마음과 입으로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저지른 그 카르마(karma, 業)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상은 불교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인도 브라만교의 업설과 불교의 업설은 다릅니다. 브라만교의 업설은 숙명론적인 입장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불교는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자작설, 타작설, 우연설 등을 모두 부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연기론적 토대에서 세운 업설이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업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의거한 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을 만들게 된 근본 원인은 무명(無知) 때문이고, 그 무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가 생겨나 업을 짓게 된다는 연기법을 토대로 업을 재조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쌍윳따니까야〉에서 "락(樂)과 고(苦)란 연하여 생기하는 것(緣起生)이며, 접촉(觸)을 연하는 것이다. 현자들은 이와 같이 업을 여실히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들이며, 업의 과보를 숙지하고 있는 자들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은 연기법에 의거한 업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을 짓는데(作) 있어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 즉 자율성과 의지를 업의 가장 중요한 제1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